



보도 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9. 17.(토)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이순아 (044-200-2346)
	안전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양신혜 (044-200-2344)

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점검·대비 지시

- 한덕수 국무총리, 제14호 태풍 ‘난마돌’ 대처상황 점검 회의 주재 -
- 18일 저녁 대처상황 점검회의 주재 및 중대본 등 철야 근무 시행 예정 -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저녁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제14호 태풍 ‘난마돌’ 대처상황을 점검했다.

* (관계기관) 행안·환경·해수·국토·농식품·산업·국방부, 기상·산림·소방·경찰·해경청 (지자체) 부산·대구·울산·강원·전남·경북·경남·제주

○ 한 총리는 태풍 전망과 기관별 대처상황* 등을 보고 받고, 지난 태풍으로 피해가 컸던 포항, 경주 등 영남 해안지역의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이번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.

< 주요 대처 상황 >

- (행안부) 9.17일 16시10분 중대본 1단계 가동, 선행 강수지역 현장 점검 등
- (환경부) 댐 운영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수위 조절, 홍수취약지구 점검 등
- (해수부) 태풍 영향 항만 내 선박 대피, 양식어업 시설물 결박, 해수면고조정보 제공 등
- (농식품부) 저수지,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 점검, 피해 예방요령 제공 등
- (국토부) 교통시설 긴급통제시 정보 신속 제공, 피해예상지역 내 공공임대 지원 준비 등
- (제주·경북 등) 반지하·지하주차장 등 선제적 출입 통제, 수방자재 현장배치 등

□ 한 총리는 무엇보다 인명피해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,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, 반지하, 지하주차장 등 침수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대피 등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.

○ 또한, 관계기관의 사전 대비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·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- 한편, 총리실에서는 태풍 근접 직전인 내일 저녁 6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, 내일 밤과 모레 오전 사이 중대본 및 관계기관은 철야 근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